

지역 매아리

정읍시, 술 산업협회 본격 출범

정읍시 술 산업협회가 공식적인 첫 출발을 알렸다.

술 산업협회는 수상동 주민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창립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그동안 공개모집을 통해 모인 술 관련 분야 종사자와 술에 관심 있는 시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술 산업협회가 이끌어 갈 초대회장은 정읍야쿠를 운영한 이인옥 씨가 참석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술 산업협회는 이날 임원진 등을 구성하고, 향후 정기총회에서 자세한 일정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회 창립은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 지형)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분야 중 하나인 술 산업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정보 교류와 의견을 모아 술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잠재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인옥 회장은 "정읍은 물이 맑아 오래전부터 전통주와 발효주로 유명한 고창이다"며 "술 관련 사업체와 소규모 주조장 간 협업과 산업과 자원을 통해 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와 긴밀히 협의해 술 산업 전반에 대한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과 함께 현재 조성계획 중인 정읍 술 문화관이 명품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주요 사업현장 방문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가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공시설주택건설사업 등 총 27개소의 사업 현장을 방문해 각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살펴 집행부에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의회는 지난 18일 새만금 일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농생명용지 조성공사, 동서남북도로 건설 사업 등 국가 주도 사업 전반에 대한 공사 현장과 새만금개발청, 33센터 전광대, 새만금홍보관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비산먼지 문제 대책 마련, 새만금 내부 철도연장 필요 등에 대한 의회 의견을 상세히 전달했다.

이날 부안군의회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농생명용지 일원에서 만들어진 대규모 비산먼지조로 인해 인근 계획면 주민을 비롯한 부안군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과 삶의 질 훼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현장에서 재확인하고 새만금개발청과 공사 관계자에게 강한 불만과 함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 이어가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 기념행사·무장기포기념제 열어

무장을 관아로 가는 20리 진격길!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 등 저마다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당당히 걷는다. 뜨거운 불 뿜벌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다. 드디어 무장집성. 관군이 지키고 있는 성문을 높고 굳게 닫혀 있다. 하지만 혁명군 기세에 눌린 관군은 거의 손을 쓰지 못하고, 혁명군은 무혈입성하며 환호했다.

고창군이 25일 공음면 무장기포지와 무장집성 일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 기념행사 및 무장기포 기념제'를 열었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동학농민혁명무장기포기념제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에는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군의장과 도의원,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전도교 관계자,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관계자, 전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관계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임원과 주민 등 1500여명이 참여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오전 9시 열린 행사는 무장기포지(현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에서 출정기념식과 포고문 낭독, 헌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참가자들은 황토빛 농민군복에 차림에 각각의 깃발을 들고 무장집성까지 약 7.2km에 걸친 진격로를 걸었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제12회 녹두대상 수상자로 정진기(전 광주 체신국장) 선생을 선정했다. 정진기 선생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창이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라는 사실을 수많은 강연과 기고문을 통해 알렸다.

또 역사문화 연구지에 '전봉준 출생지 당촌마을'이라는 기고문을 실어 출생지에 대한 여러 이견들을 정리했고, 공음 구수내 기포지에서 출토된 장검과 동학 농민혁명 관련 서적 200권을 고창군에 기증하는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에 앞장서온 공로가 인정됐다.

재능나눔 행사도 이어졌다. 마하사

정혜스님이 과일과 오이 등을 동학농민혁명군에게 나눠 줬고, 전북과 확대학교 학생들이 무장현관아와 읍성에 이·미용 서비스, 행복사진 촬영, 아르마테라피, 의료봉사 등 농촌재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 무장기포지는 125년 전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수천의 농민군들이 합창 합성과 함께 출발한 역사성과 상징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 기념일에 동학인포고문을 낭독하고,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미를 교과서에서 수록하는 작업 등 고창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계승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장기포(茂長起包)는 1894년 음력 3월20일 전봉준 장군 등이 현재의 고창군 공음면 구수마을에서 혁명의 대의명분을 설명하며 봉기를 선언한 것을 말한다.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적인 민란 수준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봉기로 내달리는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에서 즐기는 색다르고 특별한 여행

자연·문화예술·스포츠 등 취향 따라 여행코스 운영

뛰어난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관광명소를 자랑하는 전북 고창군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봄 여행주간을 맞아 본격 관광객 유혹에 나섰다.

'여행주간'은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여행수요를 분산하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국내 여행 특별 주간으로, 올해 봄 여행주간은 내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

고창군은 이번 봄 여행주간에 남녀노소 취향을 만족 시킬 다양한 테마를 마련했다. 고창 화원농장에선 초록의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청보리밭 축제'가 다음달 12일까지 열리고 있다.

또 다음달 9일에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절라예술제'도 고창에서 열려,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음악 등 공연단체가 풍성한 공연을 펼친다.

특히 전국의 독서가를 매료시킬 '2019 고창 한국지역도서전'도 준비

비를 마쳤다. 올해 도서전에선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서극찬을 받은 '민화도 할머니' 그림책' 초청전도 계획돼 있어 메인 무대인 고창해리 책마을에 관련 문구가 잇따르고 있다.

'제56회 전북도민체육'도 내달 10일부터 사흘간 고창 전역에서 38개 종목, 5만여명이 참여해 성대하게 펼쳐진다.

이밖에 '상하농원'에선 봄 여행주간을 '어린이 잔치'로 꾸며 사생대회, 킨더(초콜렛브랜드)X상하농원, 어린이운동회, 상하농원 글짓기 대회 등이 이어진다.

고창군 관광진흥팀 김동원 팀장은 "고창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최고의 봄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며 "이번 봄 여행주간에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에서 보다 색다르고 특별한 여행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부안군은 25일 부안군청 5층 중회의실에서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40여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민선7기 부안군정 소개와 새만금 현장방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는 훈순진 전주비전대학교 총장과 임해자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비롯한 대학교수, 연구원 등 각계 각층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부안군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조건과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부안군은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경제, 문화관광, 산업환경, 교육복지 등 부안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외부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위해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 부안군 주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안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을 제안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 25일 고부면 고부동학올림센터 광장에서 동학올림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정읍시, 고부면에 동학올림센터 들어서... 주민중심공간 역할 기대

고부면 소재지에 역사, 문화, 복지 등 주민중심공간이 될 동학올림센터가 들어섰다.

동학올림센터는 총사업비 3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지상 1층 연면적 740㎡ 규모로 조성되었다.

센터는 동학 정신을 기리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신축되었으며 기공체조, 농악, 요리교실, 댄스교실 등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각종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추고 있다.

또, 고부면에 산재해 있는 생활문화

자원과 고부농민복지동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역사문화 공간 고부역사 문화관을 배치했다.

고부 동학올림센터는 고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2017년 착공했다.

고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면 소재지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63억원을 들여 동학올림센터, 복지회관 리모델링, 군자정 정비, 인도블럭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과 경관개

선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는 25일 고부면 고부동학올림센터 광장에서 유진섭 시장, 시의원,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학올림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유진섭 시장은 "주민들은 센터 준공으로 각종 문화 복지서비스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정읍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동학농민혁명 역사를 바로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소통 행정 위한 언론인 정례브리핑 가져

정읍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4월 두번째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은 문상용 보건소장이 소관 주요업무와 현안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을 한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문상용 소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읍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주고 있는 언론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와 이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브리핑 했다.

3개과의 주요업무와 추진사업으로 가장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의 '정읍시 보건기관 기능 강화'와 '정읍시립 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에 대해 설명했다. 또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생활속 걷기 운동', '감염병 예방 및 방역강화', 그리고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과 '자살 예방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 브리핑은 5월 9일 열리며,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와 추진사업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a cartoon mascot,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